

후세인 살라얀 컬렉션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 특성 연구

구미지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교수

Characteristic Changes of Layered Techniques in the Hussein Chalayan's Collections

Mi-ji Koo

Prof., Dept. of Clothing &Textiles, Paichai University
(2007. 11. 7. 접수; 2007. 12. 4.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the changes of layered techniques in Hussein Chalayan's collections. For this purpose, the layered techniques in 134 works from Chalayan's collections, 97S/S to 06S/S, which were obtained from fashion magazines and fashion internet site,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15 groups.

Layered techniques in his works apparently expressed his philosophy about deconstruction. Multi-layered feeling was given through using various techniques such as one layer clothing which was showed like multi-layered clothing. Others were multi-layer clothing which felt like one layer, breaking the stereotyped line of clothing into atypical construction and using various materials or constructive lines which made the optical feeling like one layer or multi-layer clothing, and so on.

These layered techniques in Chalayan's collections were differentiated into several categories, such as techniques which were revealed in every collections, techniques which were differentiated from one another collections, techniques which were continuously showed through three collections for connection with each collection, techniques which were used only for Spring/Summer season, and techniques which were uniquely showed in early collection or recent collections.

Key Words: Layered technique(레이어드 기법), Hussein Chalayan(후세인 살라얀), Collection(컬렉션), Deconstruction(해체주의)

I. 서론

1. 연구목적

레이어드 룩은 현대 패션에 해체주의적 특성이 반영되는 다양한 기법 중 하나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레이어드 룩은 1970년대 중반 이래 오리엔탈 룩의 형태적 특징으로 유행되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명확한 정의나 특징의 변화 등이 연구되어진 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이어드 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해체주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21세기의 각광받는 디자이너인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레이어드 기법이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세인 살라얀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을 분석하며, 둘째,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레이어드 룩의 문헌적 정의 및 그 변화를 명확히 하고, 해체주의 경향의 관점에서 레이어드 기법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변화 특성을 범주화 시키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레이어드 기법 분석은 911 테러로 취소되었던 01 F/W를 제외하고 살라얀의 97 S/S부터 06 S/S까지의 컬렉션 중 레이어드 기법을 사용한 디자인 134점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서술식 기재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반복되어 사용된 단어들을 묶어 범주화 하였으며, 이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해체주의에서 사용된 단어들과 연관시켰다.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 특성은 범주화된 레이어드 기법에 대해 시زن별로 빈도 분석하였다. 컬렉션 자료는 콜레찌오니 잡지와 컬렉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¹⁾를 참조하여 기사와 사진의 내용을 중복 확인하여 분석하되 134점의 선택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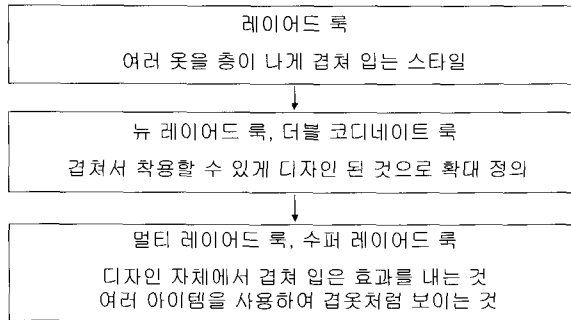
1. 레이어드 룩에 대한 정의

레이어드(layered)는 ‘겹친다’는 뜻으로 여러 옷을 층이 나게 겹쳐 입는 스타일을 말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1963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 유행되었으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룩의 형태적 특징²⁾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캐주얼웨어의 보급과 함께 1980년대 이후 1990년대에 걸쳐 현재까지 레이어드 룩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Bond³⁾에 의하면 레이어드 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1974년 가을 켄조(Kenzo)에 의해 더 길고 풍성해 보이는 실루엣이 시작되면서 풍성한 블라우스 위에 폴오버, 니트 웨이스트 코트, 헐렁한 재킷 등 여러 종류의 옷을 동시에 착용한 것을 레이어드 룩이라 불렀다고 한 데서 시작하였다. Seeling⁴⁾은 레이어드 룩이 1990년대의 드레스 스타일로 하나 위에 다른 하나를 입는 식으로 여러 겹 겹쳐 입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뉴 레이어드 룩⁵⁾은 새로운 겹치기 의복 스타일로서 더블 코디네이트 룩이나 겹쳐서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된 스커트로 확대 정의하면서 레이어드 룩이 단순히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 자체에서 겹쳐 입는 효과를 내는 것까지 포함시켰다.

삼성디자인연구소⁶⁾에서는 레이어드 룩을 일반적인 레이어드 룩, 멀티 레이어드 룩, 수퍼 레이어드 룩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레이어드 룩이란 층이 진 모양이란 뜻으로, 여러 겹을 겹쳐 입은 스타일을 말한다. 여러 단을 연결한 것도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였으며, 1970년대 전반에 유행한 것으로서 속에 입은 것이 겉에 보이게 입거나, 긴 소매의 블라우스 위에 반소매의 스웨터나 재킷을 입는 등 여러 방법으로 겹쳐 입는 룩의 유행을 그 예로 들었다. 멀티 레이어드 룩은 여러 가지의 겹옷 룩을 말한다. 다양한 겹옷 스타일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옷의 여러 가지를 짝지어 입는 것으로, 한 장의 베스트를 스웨터와 겹옷으로 입는 등 자신의 감각에 맞게 다루는 것에 대



안병기, 1993; Bond, 1981; Seeling, 1999; 삼성디자인넷, 2005.8.1 검색

<그림1> 레이어드 룩에 대한 정의의 변화

해 언급하였다. 슈퍼 레이어드 룩은 셔츠를 두 벌 겹치거나 그 위에 재킷이나 베스트를 두 벌 처럼 겹쳐 입은 것을 말한다. 즉 종래의 끼입는 옷의 상식을 초월해서 극단적으로 몇 벌이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아이템을 겹친 멀티 코디네이트 룩을 말한다. 레이어드 룩에 관한 정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1>이다.

최근 아방가르한 컬렉션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나 앤 드뮐르미스터(Ann Demeulemeester) 등의 작품에는 레이어드 기법을 사용한 디자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2.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특징은 혼성모방의 형식을 취하거나⁷⁾, 소재, 아이템 또는 스타일을 한 복식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⁸⁾,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사용함,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속옷이 겹옷화 되어 나타나며, TPO가 혼돈되어 사용되고, 성(gender)이 혼용되고⁹⁾, 양성성이 나타나는 것¹⁰⁾, 겹쳐 입기¹¹⁾, 중첩과 반복^{12),13)}, 축의 중합이 보이며, 비율, 형태, 색상과 사이즈가 해체되고¹⁴⁾, 옷의 경계설정이 모호하며¹⁵⁾, 노출과 파괴¹⁶⁾, 형태의 왜곡¹⁷⁾,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 상태인 것¹⁸⁾ 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해체주의의 특징과 패션에

<해체주의의 특징>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여러 장르의 혼합 무질서 불확정성, 미완성 노출, 파괴, 빈곤, 분해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 차연과 흔적 탈구조적, 탈구조성 탈신체화, 탈맥락화 탈중심성, 탈중력성 불연속성 분열, 파편화 형태의 해체 또는 왜곡 기능의 해체 의복과 인간이 맞는 관계의 해체	혼성모방 소재, 아이템, 스타일의 혼용 스포츠웨어의 일상화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 혼돈 속옷의 겹옷화 TPO의 혼용 성(gender)의 혼용, 양성성 중첩, 반복, 축의 중합 비율, 형태, 색상, 사이즈의 해체 옷의 경계설정의 모호 노출 파괴 착용자에 의한 완성

<그림2> 해체주의의 특징 및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나타난 해체주의를 정리한 것이 <그림2>와 같다.

3.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1970년 터키 문화권인 키프러스의 니코시아(Nicosia)에서 출생하여 Türk Maarif College를 마친 후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1993년 Saint Martin's School of Art를 졸업한 후 스웨터와 니트 국제납품업체인 TSE Cashmere에서 일하였다.¹⁹⁾²⁰⁾

그의 디자인은 트렌드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의복에 추상적인 레이어드의 컷과 도시적인 재료 위에 민속적인 요소를 첨가시켰으며 전통적인 것의 해체작업을 통해 제시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디테일들을 가진 미래 미니멀리즘을 표현한 구조적인 것들이다. 그는 1999년과 2000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상을 수상했으며²¹⁾ 갈리아노나 맥퀸과 함께 이 시대의 주목받는 패션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²²⁾

그의 디자인은 해체주의의 특이성, 우연성과 반형식주의, 장식성, 비재현성 등을 통하여 충격과 새로움을 주고 있다. 김혜영²³⁾에 의하면 살라얀 작품은 다중적인 구조를 가지며 새로운 조형적, 신체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탈구조적, 탈신체화에 따라 옷을 입는 주체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의복과 착의주체인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소매나 칼라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엉뚱한 요소로 치환되거나 칼라나 앞판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등 기존의 의복개념과는 다르게 마무리 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옷의 경계설정과 그 의미가 모호해지고 손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옷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러한 탈구조(deconstruction)성²⁴⁾은 무(無)화 시키는 것이 아니며, 움직임으로서의 의미가 흩어지는 탈중심(deconstruction)성과 연관되어 있다. 김민자²⁵⁾는 이러한 살라얀의 작품에 대해 옷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회의와 혼돈을 일으키며 인간과 옷에 대한 정신의지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II. 레이어드 기법 분류 및 변화특성 분석

1. 살라얀 작품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 분류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은 레이어드 기법의 정의 중 멀티 레이어드나 수퍼 레이어드 기법에서 더 나아가 한 벌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겹의 느낌이 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선행연구²³⁾²⁵⁾에서 살라얀의 작품에 대해 언급된 해체주의적 용어들을 중심으로 각 작품들과 연관된 특징을 연결시킨 것과 레이어드 구성기법을 분류한 것이 <표1>과 <표2>에 제시되었다.

한 벌로 되어 있으나 두 겹 또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기법1), 여러 겹을 착용하는 전통 기법(기법2), 의복의 일부분이 반쯤 꺾어져 흘러내리는 듯 보이게 한 기법(기법3), 의복 일부분의 구성선이나 구조만 사용하여 여러 아이템으로 겹쳐 입은 듯 보이게 하는 기법(기법4), 한 벌의 옷이 다른 두 실루엣으로 이루어져 여러 겹을 착용한 듯이 보이게 하는 기법(기법5), 중첩이나 반복 등을 통하여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여러 겹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기법6), 여러 소재나 무늬를 사용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7), 여러 색을 사용하여 겹친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8), 슬릿 등을 통해 안의 것을 빠져나오게 하거나 입체감과 평면감의 대조를 통해 여러 겹의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9), 비정형곡선을 사용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10), 빈티지의 여러 겹을 통한 기법(기법11), 여밈선이나 디테일 등의 기존 형태를 파괴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12), 한 벌 속에 여러 디테일을 두거나 형태를 깨뜨려 여러 겹의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13), 아래층과 위층을 혼돈시켜 여러 겹의 느낌을 주는 기법(기법14), 착용 순서를 뒤집어 입은 듯 하게 하여 여러 겹의 느낌을 준 기법(기법15)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1> 살라안 디자인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과 해체주의적 특성

기법	살라안의 디자인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 특징	해체주의적 용어
기법1	한 벌로 되어 있으나 같은 것이 두 겹 또는 여러 겹(9겹까지) 되어 있음. 상의, 치마 등 의복의 일부분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음	중첩, 반복
기법2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여러 겹 착용하여 착용 후 서로의 특징들을 통해 겹쳐 입은 느낌을 주는 기법.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기법	상호텍스트성
기법3	의복의 일부분이 반쯤 꺾어져 흘러내리는 듯 보이게 하여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 개념 정의가 모호함.	다중적인 구조, 경계선의 모호
기법4	의복 일부분의 구성선이나 구조만 사용하여 여러 아이템으로 보이게 하여 기존 형태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기법.	형태의 해체
기법5	한 벌의 옷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두 실루엣을 갖게 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중첩, 경계선의 모호
기법6	중첩 등을 통하여 경계선의 혼돈을 통한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중첩, 반복, 경계선의 모호
기법7	여러 소재나 무늬를 사용하여 형태와 구조가 다른 옷처럼 연결시켜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무질서, 형태의 해체, 탈구조성, 탈중심성
기법8	같은 소재이면서 여러 색을 사용하여 겹친 느낌을 주는 기법, 한 옷이면서 다른 두 겹의 느낌.	형태의 해체, 탈중심성, 탈구조성
기법9	슬릿이나 구멍을 통해 안의 것을 빠져 나오게 하거나 입체감과 평면감의 대조를 통해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이 과정을 통한 신체의 노출과 비연속성. 신체의 구속	노출, 비연속성, 탈신체화
기법10	지퍼 등을 사용하여 형성된 비정형 곡선을 통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형태의 해체, 아이템의 혼돈
기법11	찢고 일정한 선을 파괴하면서 빈티지 느낌을 통해 여러 겹의 느낌을 갖게 하는 기법	파괴, 반형식주의, 형태의 해체
기법12	여밌선, 디테일 등 기존의 형태를 깨뜨려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형태의 해체
기법13	한 벌 속에 여러 디테일을 두거나 형태를 깨뜨려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 (예. 두 종류의 칼라, 뒤로 넘어가는 라펠)	탈구조성, 탈중심성, 형태의 해체
기법14	아래층과 윗층 혼돈을 통한 레이어드 기법. 속의 옷 자락이 겉으로 나와 있고 겉자락은 속으로 들어가 있음	탈중심성, 탈구조성, 탈맥락화, 불연속성
기법15	착용순서를 뒤집어 입은 듯하게 하여 베스트 같은 코트 등 여러 겹의 느낌을 준 기법	형태의 해체, 기능의 해체, 무질서

<표2> 레이어드 기법 분류

기법	기법1	기법2	기법3	기법4	기법5
디자인예					
해체	중첩, 반복	상호텍스트성	다중적인 구조, 경계선 모호	형태의 해체	중첩, 경계선의 모호
기법	기법6	기법7	기법8	기법9	기법10
디자인예					
해체	중첩, 반복, 경계선의 모호	무질서, 형태의 해체, 탈구조성, 탈중심성	형태의 해체, 탈중심성, 탈구조성	노출, 비연속성, 탈신체화	형태의 해체, 아이템의 혼돈
기법	기법11	기법12	기법13	기법14	기법15
디자인예					
해체	파괴, 반형식주의, 형태의 해체	형태의 해체	탈구조성, 탈중심성, 형태의 해체	탈중심성, 탈구조성, 탈맥락화, 불연속선	형태의 해체, 기능의 해체, 무질서

2. 컬렉션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특성 분석

살라얀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을 시즌별로 분석하여 변화 특성을 살펴본 것이 <표3>과 <그림3>에 제시되었다.

한 벌로 만들어졌으면서 여러 겹으로 보이게 하는 기법1은 거의 모든 시즌의 컬렉션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법1만큼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구조선 일부를 사용하는 기법4나 여러 소재나 무늬를 사용한 기법7, 구멍이나 슬릿을 사용하여 입체감과 평면감의 대비를 사용한 기법9 등이 전체적인 컬렉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주기법이나 부기법등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아래 층과 위 층의 것에 대한 혼돈을 갖게 하는 기법14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해체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어렵지 않게 제시해 주는 기법들이라 볼 수 있었다.

다른 시즌과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기법을 살펴보면, 03F/W에서 착용순서를 뒤집어 입은 듯 하게 하여 여러 겹의 느낌을 준 기법15와 05F/W에서 한 벌이 다른 두 실루엣을 갖게

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5 등과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기법들은 단 한 시즌에만 각각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시즌의 컬렉션과 차별화시키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일부분이 반쯤 꺾어져 흘러내리는 듯 보이게 하는 기법3과 같이 뚜렷한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는 기법은 99S/S 컬렉션의 특징으로 사용되었다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으나 03S/S와 03F/W에 한 경우씩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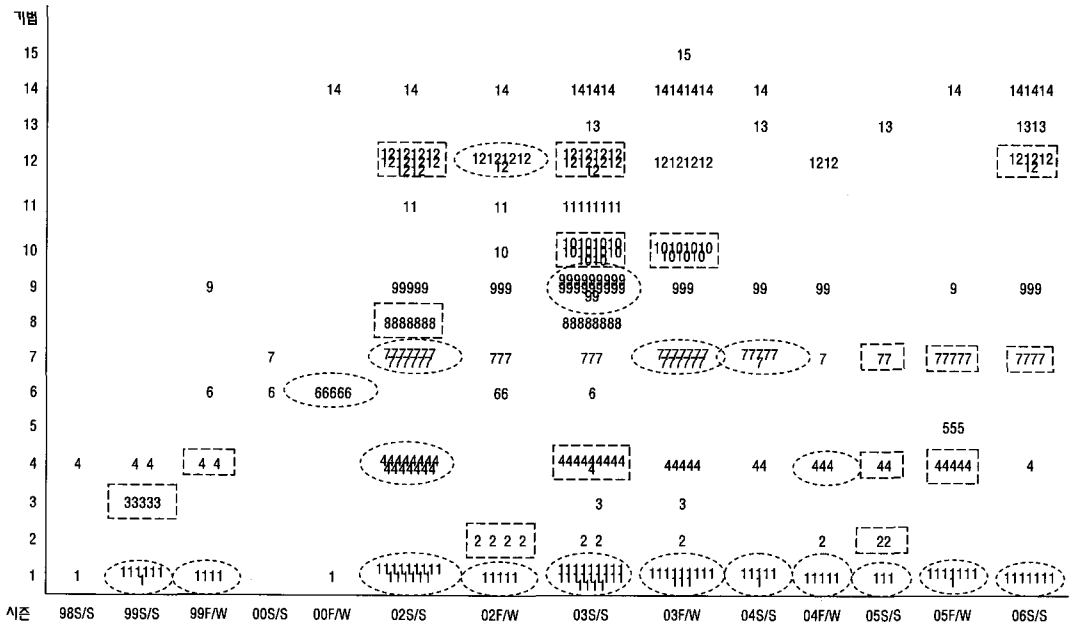
연속적인 세 시즌에 나타나는 기법들은 잠깐 선보이듯 나타났다가 세 번째 시즌에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법을 보이는데, 99F/W, 00S/S, 00F/W에서 중첩 등을 통하여 경계선의 혼돈을 통한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6, 02F/W, 03S/S, 03F/W에서처럼 비정형 곡선을 사용한 기법10과 02S/S, 02F/W, 03S/S에서 보여지는 찢고 파괴하는 것을 통해 빈티지 룩으로 겹쳐 입은 효과를 보여주는 기법11과 같이 형태를 해체하면서 다른 기법들과 달리 복잡하고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기법들이다.

S/S시즌에 나타나는 기법들은 여러 색을 사용하여 겹친 느낌을 주는 기법8이 02S/S, 03S/S에

<표3> 시즌별 레이어드 기법과 특징(다빈도 출현 중심으로)

시즌	갯수	레이어드기법	다빈도 출현기법의 특징
98 S/S	1	-	-
99 S/S	12	1,3	한 벌이나 여러 겹. 꺾어져 흘러내리는 방법
99 F/W	7	1/ 4	한 벌이나 여러 겹 / 구조선 일부 사용
00 S/S	1	-	-
00 F/W	5	6	중첩
02 S/S	22	1,4,7/ 8,12	한 벌이나 여러 겹. 구조선 일부 사용, 여러 소재나 무늬 / 여러 색, 형태파괴
02 F/W	11	1,12/ 2	한 벌이나 여러 겹. 형태 파괴 / 여러 겹
03 S/S	28	1,9/ 4,10,12	한 벌이나 여러 겹. 구멍이나 슬릿 사용 / 구조선 일부 사용, 비정형 곡선, 형태 파괴
03 F/W	14	1,7/ 10	한 벌이나 여러 겹. 여러 소재나 무늬 / 비정형 곡선
04 S/S	7	1,7	한 벌이나 여러 겹. 여러 소재나 무늬
04 F/W	6	1,4	한 벌이나 여러 겹. 구조선 일부 사용
05 S/S	5	1/ 2,4,7	한 벌이나 여러 겹 / 여러 겹,구조선 일부사용, 여러 소재나 무늬
05 F/W	8	1/ 4,7	한 벌이나 여러 겹 / 구조선 일부 사용, 여러 소재나 무늬
06 S/S	7	1/ 7,12	한 벌이나 여러 겹 / 여러 소재나 무늬, 형태 파괴

참고: 주기법/부기법으로 표시함. 98S/S, 00S/S는 1개 작품에서만 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3> 시즌별 레이어드 기법의 출현빈도. 원형은 주기법, 사각형은 부기법을 나타냄.

나타나고 있고, 두 종류의 칼라나 여밈선 등이 한 벌 옷에 있게 하는 등 한 벌 속에 여러 디테일을 두거나 형태를 깨뜨려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13은 03S/S, 04S/S, 05S/S, 06S/S의 봄여름 시즌에만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 기법은 비교적 얇거나 비치는 소재들을 통해서 겹침이나 구조를 깨뜨리면서 중복되는 아이템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기법들이었다.

연구대상 컬렉션 기간의 중간인 03S/S를 기준으로 볼 때 중첩 등을 통하여 경계선의 혼돈을 통한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6, 여러 색을 사용하여 겹친 느낌을 주는 기법8, 찢고 파괴하는 것을 통해 빈티지 룩의 겹쳐 입은 효과를 보여주는 기법11 등은 초기 컬렉션에 주로 나타나는 기법이었고, 한 벌의 옷이 다른 두 실루엣을 갖게 하여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5, 한 벌 속에 여러 디테일을 두거나 형태를 깨뜨려 여러 겹 느낌을 주는 기법13, 두 아이템의 착용순서를 뒤집어 입은 듯 하게 하여 여러 겹의 느낌을 준 기법15는 후기 컬렉션에 나타나고 있었다. 초기 컬렉션에 나타났던 독특한 기법들은 소재의 겹침이나 반복, 찢음 등을 통해 특징적인 것을 나

타내었고, 후기 컬렉션에 나타났던 독특한 기법들은 좀더 기교적이고 기존 개념에 대한 일탈이 강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컬렉션에 나타난 다양한 살라안의 작품들이 어떤 양식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결론론적인 양식 분석을 피하면서 컬렉션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변화를 레이어드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살라안의 작품은 기존의 형태, 기능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있으며 해체주의에 대한 그의 철학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들은 실제로는 한 겹이면서 여러 겹의 느낌을 주는 것, 실제로는 여러 겹이면서 한 벌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정형적인 선을 여러 작품을 통해 서서히 해체해 가면서 비정형적인 것들로 변화시켜 가는 것, 다양한 소재와 구조선을 통해 한 겹 또는 여러 겹의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 평면감과 입체감을

넘나드는 것 등을 통해 중첩, 반복, 상호텍스트성, 다중적인 구조, 경계선의 모호, 형태의 해체, 무질서, 탈구조성, 탈중심성, 노출, 비연속성, 탈신체화, 아이템의 혼돈, 파괴, 반형식주의 등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레이어드 기법은 기존의 겹쳐 입기 방식을 뛰어 넘어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착시와 혼돈을 통해 레이어드 룩으로 보이도록 시선을 유도하였다.

살라얀의 컬렉션에 나타난 레이어드 기법은 15개의 기법으로 분류되었다. 시즌별 레이어드 기법의 변화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시즌의 컬렉션마다 나타나는 기법들은 살라얀 작품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일관성 있으면서 평이한 해석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법들이었다. 다른 시즌과 차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독특한 해석이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시즌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컬렉션마다의 연계성을 위해 세 시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기법들은 형태를 해체하면서 다른 기법들과 달리 복잡하고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 것들이었다. S/S 시즌에만 사용되는 기법들은 비교적 얇거나 비치는 소재들을 통해서 겹침이나 구조를 깨뜨리면서 중복되는 아이TEM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기법들이었다. 초기 컬렉션에 비하여 후기 컬렉션에 사용된 기법들은 좀 더 기교적이고 기존 개념에 대한 일탈이 강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 컬렉션마다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인식되게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레이어드 기법에 대한 정의나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용어정의나 선행연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 또한 살라얀의 작품 외에 해체주의적 접근을 한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들 속에 나타난 레이어드 룩의 기법들을 분석하는 것도 후속적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Firstview. Hussein Chalayan Collection.. 자료검색일(최근). 2007. 10. 27.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 김영인 외 9인 (2006).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서울: 교문사, p.118.
- 3) Bond, D. (1981).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Guinness Superlatives Limited: Middlesex, p.205.
- 4) Seeling, C. (1999).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Spain: Konemann, p.634.
- 5) 안병기 (2003). *패션전문용어의 이해* 서울: 경춘사, p.20.
- 6) Samsung Design Net. Hussein Chalayan Collection. 자료검색일(최근). 2007. 10. 1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7)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2*. 서울: 교문사. pp.93-95.
- 8) 김혜정 (1997). 해체주의 건축양식과 현대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pp.89-100.
- 9) 전해정, 김희균 (2002). 현대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90년대 후반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지*, pp.49-50.
- 10) 김혜정 (1997). Op. cit.
- 11)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 (1999). 현대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8.
- 12) 박현신 (1998).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pp.179-192.
- 13) 김혜정 (1997). Op. cit.
- 14) 김주영, 양숙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2(1), pp.3-17.
- 15) 김혜영 (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복식* 50(4), pp.5-20.
- 16) 김주영, 양숙희 (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261-1274.
- 17) 박현신 (1998). Op. cit.
- 18) 김주영, 양숙희 (1998). Op. cit.
- 19) Seeling, C. (1999). Op. cit.
- 20) Jones, T. & Mair A. Ed. (2002). *Fashion Now*.

London: Taschen,

- 21) Ibid, p.110.
- 22) Baudot, F. (1999).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377.
- 23) 김혜영 (2000). Op. cit.
- 24) 김소영, 이병화, (2006). 패션 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pp.35-47.
- 25) 김민자 (2004). Op. cit.